판교 중대형 아파트 설계 기술 총동원

자연과 소통하는 실내 공간 '눈길'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교신도시. 이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판교신도시에 자연친화적인 명품 아파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제대로 '이름값' 하는 아파트를 지어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건설사 컨소시엄별로 판교신도시에 분양할 아파트의 설계 특장점을 살펴보았다. 에디터 김소진

다시 8월 판교 분양이 시작됐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대부분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수에 따라 벽체 구조를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거실, 식당, 주방을 더욱 넓고 개방감 있게 설계해 채광, 일조, 조망을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띈다. 건설사 컨소시엄별로 아파트 설계와 평면의 특장점을 살펴보았다.

대림산업, 2면 개방형 거실 · 전용 테라스로 삶의 여유가 풍겨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판교 2공구의 A26-1, A27-1 블록에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2층, 총 688세대 규모의 탑상형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 아파트는 38평형 265세대 2개 타입, 44평형 417세대 5개 타입, 58평형 4세대 2개 타입, 69평형 2세대 등 10여 개의 다양한 타입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38평형은 4베이 구조에 후면 발코니를 설치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4평형은 2면 개방형으로 거실을 만들어 자연 채광 및 경관 조망감을 살려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했다. 침실과 침실 사이의 벽체도 실내 가변형으로 설치해 가택근무(Working at Home)를 위한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인 58평형의 경우 일반 단독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복층형 평면을 적용해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복층형의 아래층은 가족 전체가 함께 생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위층은 아이들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층은 세대 전용 테라스를 적용해 개인 정원 및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꾸밀 수 있어 주부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최상층인 68평형 2세대는 단독주택 분위기의 세대 전용 테라스를 설치해 전원 생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1 대우건설 56평형 거실. 2 대림산업 판교 2구역 조감도. 3 대림 e-편한세상 44평형 거실 뒷방 활용 전경. 4 대림 e-편한세상 44평형 빌트인 주방 전경. 5 대림 e-편한세상 38평형 평면도.

1 현대건설 판교 3공구 조감도.
2 현대건설 39평형 판상형 평면도.

현대건설, LDK설계 공법으로 더욱 넓은 아파트 연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세대 내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평면 설계가 돋보인다. 39, 45, 57, 69평형으로 나뉘는 이 아파트는 전 평형 모두 4베이로 평면 설계를 했으며 거실과 침실에 가변형 벽체를 적용했다. 또 주방을 비롯해 곳곳에 수납 공간을 확보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그중 39평형 모델하우스 내부는 독특한 오브제와 잘 어울리는 생명력을 지닌 컬러 연출로 간결한 모더니즘이 느껴지도록 꾸몄다. 생활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39평형은 각 방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을 존중한 특별한 공간 연출이 돋보인다. 39평형(판상형) 평면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실과 식당, 주방이 모두 연계돼 있는 LDK(Living Room-Dining Room-Kitchen) 설계 공법을 사용해 거실 밖 경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넓고 여유로운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

45평형의 인테리어 컨셉트를 살펴보면 천연 소재의 마감재와 대담하면서도 절제된 선들을 조합해 안정적이면서도 중후한 느낌과 함께 모던함이 더해졌다. 45평형 판상형은 자녀 수가 더 늘어나거나,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속실 형태의 침실을 마스터 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57평형 또한 거실 밖 전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전망형 다이닝룸으로 설계했으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침실을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69평형은 도시적인 느낌의 세련된 패턴과 내추럴한 소재를 사용해 도시적인 시크함을 살렸으며 강한 와인 컬러로 예술가적인 감성과 자유로운 감각을 표현한 뉴 모던(New Morden)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다양하게 공간 연출이 가능한 홈바와 다이닝룸으로 삶의 여유로움과 품격을 느끼게 하는 설계와 인테리어도 제격이다.

태영 · 대우건설 · 경남기업, 가변형 · 자연친화적 설계

㈜태영 컨소시엄이 만드는 아파트는 35층 초고층 타워형으로 4베이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일조율 91%의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된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의 개성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평면을 바꿀 수 있는 기둥식(무량벽체) 구조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자의 편의에 따라 '신혼부부형' '부부자녀형' '생활여유형' 평면 등으로 가변형 설계를 했다. '신혼부부형'은 안방 드레스룸을 극대화하고 작은 방을 통합해 서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부부자녀형'은 안방과 연계해 서재를 두고 가족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조성한다. '생활여유형'은 자녀 독립 후 부부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평면으로 게스트룸과 취미실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혔다.

대우건설(75%)과 계룡건설(25%)이 짓는 아파트는 초고층 타워형과 판상형 등 조망과 대지 조건을 고려한 건축 설계가 눈에 띈다. 30~50평형대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자녀 중심형' '여가 생활 중심형' 등 다양하게 평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50평형대는 복층형 구조로 높은 천장고와 넓은 테라스로 이색적인 주거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기업은 39평형 G타입의 경우 뒷마당에서 식당-거실-데크-정원-생태공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단독주택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44평형은 거실을 시원하고 원목 느낌이 물씬 풍기는 대청마루형으로 만들고 수변 조망이 가능한 욕실을 만들어 편안한 '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58평형은 거실 천장고가 높고 2명 개방으로 일조, 채광, 조망을 극대화시켰으며 식당과 거실 사이에는 다락처럼 높게 만든 테라스 개념의 누마루를 설치한다. 식당에서 외부 조망을 감상하며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쾌적한 느낌도 더했다.

1 대우건설 판교 4공구 조감도. 2 대우건설 56평형 주방. 3 대우건설 56평형 침실. 4 (주)태영 판교 조감도.